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6학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7	2

1. 회의일시: 2026.09.10.(목) 14:07-15:59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6.09.02.(수)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9명)

- 이사(7명): (직접참석) 고덕희, 김이경, 이길재, 이슬기, 이우정, 임용빈, 조숙진
- 감사(2명): (직접참석) 장숙영, 조현준

□ 불참 인원(1명)

- 이사(1명): 성차용

□ 배 석 자:

- 법인사무국(3명): (간사) 이우준 총무처장, 윤지연 과장, (서기) 최보경 과장

5. 회의안건

가. 의결 안건

- 제1호: 202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
- 제2호: 2026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 제1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취소 보고
- 제2호: 2026년 대덕대학교 사립학교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대응관련 경과 보고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길재
----	-----	----	-----	----	-----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6학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직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재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 선언

의장(이사장: 김이경) 2026학년도 제3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금번 2026학년도 제3회 이사회에는 두 분의 감사께서 직접 참여해주었음을 말하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주신 감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다. 보고안건

의장(이사장: 김이경) 2026학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사에 설명을 요구하다.

(간사 이우준) 의결안건 17개 안건 중 제8호 중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동의(안)만 제3호 안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의결되었고 나머지 안건은 이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설명하다. 기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를 요청하다.

라. 의결 안건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1호 202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을 상정하다.

(간사 이우준) 제1호 안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 제1호 안건 심의 중 14:12에 이길재 이사가 추가로 참석하여 참석이사가 총 7인으로 변경됨을 확인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주요 골자는 최근 법인에 인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하다. 기타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우	이사	이길재
----	-----	----	-----	----	-----

(이사 이우정) 면접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지 묻다.

(간사 이우준) 최근 법인에서 인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 면접을 포함한 전 과정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하였다고 설명하다. 다만, 교육청은 제2차 시험에서 면접전형까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법인과 달리 본 법인은 제2차 시험까지의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사항이라고 말하다.

(이사 이우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다.

(이사 임용빈)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의 방법으로 공립지원자도 모두 선발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하다.

(간사 이우준) 지원자는 창성학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다. 전형과정 종료 후 교육청으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받아 내년 2월 경 신규임용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 조숙진 이사의 동의, 고덕희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1호 202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호 2027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 가결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8과목, 11명

법인명	학교명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합계
		국어	영어	지리	음악	화학	정보·컴퓨터	체육	경영·금융 (舊상업)	
학교법인 창성학원	대전중앙중학교		1							1
	대전중앙고등학교	1		1	1					3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1			1	2	1	2	7
합계		1	2	1	1	1	2	1	2	11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교과목 (교육청 권고사항)				●		●	●			

■ 시험방법

- 1) 위탁방법: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 2) 시험방법: 제1차(필기시험: 교육학 / 전공) 및 제2차(수업실연(수업지도안 작성), 실기·실험시험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전형일체(전 과정)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함.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경재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2호 2026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김대성 총장 및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14:19에 배석하다.)

(배석 김호겸 처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 이우정) 다음에는 회의자료를 배포할 때 요약자료를 함께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인건비 중 2억 8천만원이 왜 퇴직법정부담금으로 미발생할 예정인지 묻다. 그리고 일반직원 급여 집행현황을 반영한 예산 감액이 있는데 직원 수가 줄었다는 의미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자연발생적으로 직원이 줄었을 경우 제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감원된 인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법정부담금 감액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하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외국인유학생이 기존보다 증원되었고, 해당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다. 당초에는 D2 비자로 입학할 수 있는 유학생을 받다가 단기연수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이 증원되었고 그 인원을 학과로 편입시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예비비를 1억원 증원된 것은 임시로 늘려놓은 것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사업비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어디로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다. 해당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야 하는지 차기이월자금으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 하였고 차기이월자금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차기이월자금도 늘었는데 다음 회 차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회기 내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진재
----	-----	----	-----	----	-----

(이사 임용빈) 중복계상된 예산은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적립금을 인출해서 넣는 과정에서 중복계상이 되며, 표기를 해두어야 실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표기를 해두는 것이라고 하다. 약 23억원의 규모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그렇다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그렇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적립금을 인출하면서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잡히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용도변경 때문에 표기를 해야 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예산을 줄여서 학생 장학금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다. 그렇다면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감축한 예산안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는 추가로 감축이 가능한 것인지 묻다.

(배석 김호겸 처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 고덕희 이사의 동의, 이길재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 대덕대학교 김대성 총장,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14:35에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2호 2026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2026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단위: 원)

구	분	2026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26학년도 본 예산	증 감 액
등	록	금	회	계
		11,535,007,000	10,963,821,000	571,186,000
비	등	록	금	회
		17,430,253,000	17,397,616,000	32,637,000
내	부	거	래	제
		0	0	0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길재

구	분	2026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26학년도 본 예산	증 감 액
합	계	28,965,260,000	28,361,437,000	603,823,000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다.

(* 학교법인창성학원 윤지연 관리과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14:36에 배석하다.)

(배석 윤지연 과장) 제3호 안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 이우정) 국고보조금 1억1천8백만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비 4천만원 이내, 인건비 4천만원 이내, 소송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본 법인이 하반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이 되면서 타 법인의 미사용 예산을 우리 법인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교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다. 해당 금액은 담당자와 이메일과 유선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며 마지막 유선전화 상으로는 이 금액 이상으로 교부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확정된 예산인지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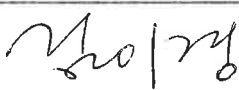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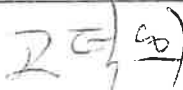
(배석 윤지연 과장) 확정은 아니지만 가 확정으로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이사회 운영비는 이미 반영된 사항이 아닌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기비품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이사회 운영비는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 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하다. 노트북 구입 및 회의장 조성 등으로 5천3만원을 반영했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임시 이사 파견 덕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하다. 소송비용도 있는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소송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이사		이사	
----	---	----	---	----	---

의장(이사장: 김이경) 정해진 구성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잡손실 9,800만원은 소송 패소를 고려한 예산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현재 소송이 패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고 하다. 성 전 사무국장이 최근 5년간 본 법인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은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다. 다만 진행 중인 소송 중 두 건이 충남지노위의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이 있는데 본 법인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간 해석의 차이로 지노위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이우정) 직원 퇴직금의 감액은 어떤 부분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퇴직금은 현 사무국장에 대한 사항인데 당초에 법인에서는 사무국장의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5학년도 외부회계감사 시 기금 성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별도 적립없이 해당자의 퇴직 시점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는 권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다.

(이사 이우정) 퇴직연금제도가 아닌지 묻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당초에는 퇴직금으로 편성을 했었지만 외부회계감사에서는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년 퇴직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 퇴직시점에 일괄 반영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묻다. 해당 예산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지 묻다. 퇴직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진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고, 중도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장재

(이사 임용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당시 외부회계 감사 시 감사를 해주셨던 회계사께 다시 한 번 자문을 해 보겠다고 하다. 당초 법인에서 한 대로 진행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 적립을 하고 나중에 인출하는 과정과 대상 인원이 많지 않은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다.

(감사 장숙영) 기금의 의미를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예금에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산 내 퇴직금은 0원으로 해놓는 것이 맞고 발생주의 회계처리에서는 충당부채로 설정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인건비에 상임이사 보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태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현재 지급이 중지된 상태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지된 상황인지 묻다. 나중에 이월되거나 조정해서 진행될 예정인지 묻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상황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그렇다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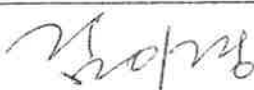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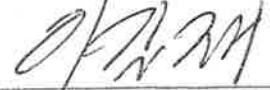
(이사 임용빈) 가장 큰 것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국고보조금인 것 같다고 하다. 확정이 언제쯤 되는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9월말에서 10월초라고 하다. 노트북 구입 등도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구입수량과 사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문 수신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 이슬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별건의 소송이 있는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별건의 소송은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고 하다.

(이사 이슬기) 계약되어 있는 자문 법인이 있는지 묻다.

이사		이사		이사	
----	---	----	---	----	---

(배석 윤지연 과장) 있다고 하다. 수시로 유선 등을 통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서도 받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하다.

(이사 이슬기) 앞서 말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사항과 중간에 화해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 전 사무국장에 대한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대해 불이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당시 성 전 사무국장의 임용기간과 법인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화해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 이길재 이사의 동의, 조숙진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가결)				
(단위: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763,049	633,419	129,630	20.5%

마. 기타협의 및 보고안전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1호 기타협의 및 보고안전 이전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요구하다.

(배석 윤지연 과장)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신성동 임야에 대한 연장승인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다. 해당 임야는 과거에 교육부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신고 수리 기간 내 인 2026년 9월 1일까지 해당 자산의 처분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법인 내부 의사결정 및 운영 여건 등의 사유로 처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교육부를 통해 효력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일까지 승인 완료되었기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고 말하다. 소재지는 유성구 신성동 산 11-15 123평, 산 11-23 674평으로 총 7억 8백여만원이라고 하다.

이사 김이경 이사 고리노 이사 이길재

의장(이사장: 김이경)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교육부의 효력기간 연장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처분이 되지 않아 기한만 연장한 것인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그렇다고 답변하다. 처분행위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이우정) 처분 이후 재산은 어떤 유형의 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당초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예금으로 대체취득 할 예정이라고 하다.

(* 학교법인창성학원 윤지연 관리과장이 14:58에 안전설명을 마친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1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취소 보고를 상정하다.

(간사 이우준) 제1호 안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제1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취소 보고 보고완료				
■ 신규임용 취소				
성명	직위(급)	당초 발령사항	변경사항	비고
한	교원 (교육전담조교수)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근무를 명함. 조교수(교육전담교수)에 임함. ※ 임용기간: 2026.09.01.~2028.08.31. ※ 발령일자: 2026.09.01	임용취소 (임용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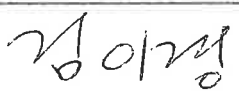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2호 2026년 대덕대학교 사립학교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대응관련 경과 보고를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김대성 총장이 안전설명을 위해 15:02에 배석하다.)

(* 대덕대학교 김호겸 기획처장이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퇴실하다.)

(* 장숙영 감사가 참석이사에 양해의 말을 전하고 개인사정으로 15:02에 중도 퇴실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제2호 안전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비용을 어떻

이사  이사  이사 

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경영자문 컨설팅 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하고 있고, 대학의 유휴재산에 대한 자산 매각은 지난 회차에 보고하였다고 말하다.

(이사 임용빈) 컨설팅팀은 무엇인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자문 컨설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종료 이후에 도출된 내용을 이행하기에는 내년 2월 말까지 시간이 부족하여 중간에 착중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다. 방향성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이행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법인과 대학에서는 선제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약 120억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마련된다면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컨설팅팀에서 해당 방법을 구체화해서 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분석만 해서 알려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전자라고 하다. 이 추정 비용은 대학에서 2026년에 평가 받은 내용을 기본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수치이므로 컨설팅팀에서 도출하는 부분과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컨설팅팀에는 2029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총 자산과 투입된 비용 등을 총 망라해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신입생 충원율은 재단에서도 분석을 한 것 같다고 하다. 이 충원율은 내외국인을 포함한 학생인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내외국인을 포함한 정원내 학생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외국인 학생을 충원한다는 것은 정원 내로 충원하겠다는 것인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글로벌계열에 24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다. 당초 480명으로 늘려서 학과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사회 파행으로 시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다. 2027학년도에 외국인유학생 모집인원이 늘어났다면 도

이사

김이영

이사

고덕호

이사

이강재

움이 됐을 것 같은데 해당부분이 아쉽다고 하다. 내년에는 유학생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재원을 만들어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재정 부담을 해야 재정위기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적자 구조인 것 같다고 하다. 해당 재원을 어떤 식으로 창출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고 하다.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인데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자산 매각은 차치해두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올해 860명, 내년 1300여명으로 확충하자는 것이 연 초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교직원의 임금 조정에 대한 논의구조와 긴축재정이 수반이 되어야할 것 같다고 하다. 현재 라이즈와 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즈는 한계가 있고 혁신지원사업은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혁신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대체효과를 이루어낼 생각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라이즈와 혁신사업은 재정평가와 관련하여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해당 부분은 조정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다. 혁신지원사업은 1차에 12억을 받았으나 평가를 통해 10억 6천이 추가로 확정되었다고 하다. 따라서 라이즈와 혁신지원사업을 통틀어 약 51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중단이 되거나 금액이 감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그렇다고 하다.

(이사 조숙진) 모든 대부분 지방 사립대학의 관건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일텐데 대덕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우리는 4학기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현장실습을 마지막 학기에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교육과정이었으나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1학년 2학기부터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다. 또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고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그렇지 못한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나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하다.

이사

김아영

이사

고덕호

이사

가장재

또한 대전권의 업체를 모두 모아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행사도 진행하였고, 교환학생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환학생이 추진완료 되면 내년학기 기준으로 약 4백여명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앞서 말한 현장실습 학기제는 유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실습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습득도 가능하며, 2학년 졸업 후 회사에 취업도 가능하여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다.

(이사 조숙진) 타겟 국가는 어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현재는 베트남 학생이 많고 네팔학생도 있다고 하다. 중국은 국가정책에 따라 유학생 파견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다.

(이사 이길재) 지난 이사회 때 대학의 생존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하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하였는데 보고자료에는 대학 본부와 여러 구성 주체와의 갈등 때문에 거버넌스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고 하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재정위기대학 되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 그리고 앵커사업도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지원받는 것 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하다. 그리고 구조개선 추정 예산이 약 110억원 인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순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등록금 수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몇 명을 어떤 구성 비율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금액은 두 개년도가 합쳐져서 그런 사항이라고 하다. 각 단체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다. 당초에는 비대위에 각 단체와 보직자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각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과 협의를 거쳐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다. 교수회가 구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교수회의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 이길재) 다음 이사회 할 때 까지는 비대위가 어느 단체에 몇 명, 어떤 비율로 또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다음 이사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빨리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컨설팅 내용을 가지고 비대위가 빨리 실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다. 비대위가 의견을 잘 주어야 하고 그것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다.

이사

김이영

이사

고덕희

이사

이길재

(이사 이길재) 이 정도 위기 상황이라면 골고루 들어가는 단체에 의사결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총장과 구성원들은 해당 결과를 이행하는데에 집중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한 달 동안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하루 빨리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구성현황을 제시하지 못한 총장에 불찰이 있다고 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력을 했으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비대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컨설팅에 대한 서포트를 하든,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든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9월 초까지 총장께서 단체들과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다. 모든 주체들이 현재 우리 대학이 위기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대화를 통해 문을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난 주에는 작성예시를 만들어서 회신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임용빈) 안을 제시하고 테이블에 던져준 상황이니 빨리 취합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이길재) 원래 올해 천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학내 의견수렴이 안된 것인지 묻다.

(배석 김대성 총장) 학과구조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는데 이사회가 파행이 되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다.

(이사 이길재)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본부에서 구조조정안을 짜서 진행해도 학과에서 해당 부분을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그 부분은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다.

(이사 이길재)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위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과의 역할

이사	김대성	이사	이길재	이사	이길재
----	-----	----	-----	----	-----

은 무엇인지 또 각 분과의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보고하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오전에 총장과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사들과 본인도 동일한 지적을 했다고 하다.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였으나 그간 총장의 노력을 들었더니 또 이해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다. 꼭 다음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구성이 되고 진행 되는대로 보고해달라고 하다.

(이사 이길재) 대덕대학은 하루가 아쉬운 상황인데 이렇게 구성도 안된 상태라면 아쉽다고 하다.

(이사 임용빈) 꼭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사장께 보고하신 후에 각 이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요청하다.

(배석 김대성 총장)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 김대성 총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15:52에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 제2호. 2026년 대덕대학교 사립학교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대응관련 경과 보고: **보고완료**

바.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김이경)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김이경) 간서명은 본인과 고덕희 이사, 이길재 이사가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2026.09.10.(목) 15:59 폐회)

이사 김이경 이사 고덕희 이사 이길재

2026.09.10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 사 장	김 이 경	(서명)
이 사	고 덕 희	(서명)
이 사	이 길 재	(서명)
이 사	이 슬 기	(서명)
이 사	이 우 정	(서명)
이 사	임 용 빈	(서명)
이 사	조 숙 진	(서명)
이 사	성 차 용	(서명)
감 사	장 숙 영	(서명)
감 사	조 현 준	(서명)